

최연의 산 이야기 <12> 가야산 4



남연군 묘 앞에서 있는 정명등 지동돌 너머로 보이는 가야산 석문봉.

명당의 주인 따로 있으니 만백성의 것

“해미(海美) 가야산(伽倻山)의 동남쪽은 토산(土山)이고 서북쪽은 돌산이다. 동쪽에 있는 가야사 동학(洞壑)은 곧 상고(上古) 때 상왕(象王)의 궁궐터이고 서쪽에 있는 수렴동(水簾洞)은 바위와 폭포가 뛰어나게 기이하다. 북쪽에 있는 강당동(講堂洞)과 무릉동(武陵洞)도 수석(水石)이 또한 아름다우며 아울러 마을과 아주 가까워서 살만한 곳이다. 합천 가야산보다는 못하나 또한 바닷가의 경치를 차지한 곳이다.”

가야산의 산세와 그 품에 안겨 있는 가야사에 대하여 이중환(李重煥)은 <택리지(擇里志)>에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왕은 모든 부처를 일컫는데 <열반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큰 열반은 오직 큰 상왕이라야 능히 그 뜻을 다 알 것이다. 큰 상왕은 모든 부처를 말한다. (大涅槃經 唯大象王 能盡其底 大象王 謂諸佛也)”

즉, 가야산 동쪽에 있는 가야사의 주변의 골짜기들은 모든 부처들이 머물 절터라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이 골짜기의 이름이 절골이다.

앞으로 모든 부처들이 머물 절들이 세워질 곳에 이미 있는 절마저 불태워버리고 개인과 가문의 욕망을 채우려고 묘를 썼으니, 이대(二代)에 걸쳐 입금은 배출하였으나 결국 나라를 잃은 마지막 입금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불타서 없어진 가야사는 어떤 절이었을까?

성종(成宗) 때 편찬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가야사는 고려 공민왕 7년(1358년) 나옹 화상(土木金剛)이 세운 것이라고 전한다고 적고 있으며, 수덕사보다 먼저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수덕사보다 큰 절이었던 듯하고, 가야사 보충전에 절불이 세 분 모셔져 있었다고 하는데, 절불이라면 그 시기가 신라 말에서 고려 중기까지의 것이다. 그리고 금탑이 있는 자리에 묘를 썼다고 했는데, 같은 책에 “금탑(金塔)은 그 윗머리는 구리쇠로 씌우고 네 모서리에 철사를 꼬아 만든 줄을 걸어 늘어뜨리고 풍경을 담았다. 그 형태가 웅장하고 만든 법이 기이하고도 교묘하여 다른 탑과 다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미루어 짐작컨대 가까이에 있는 마곡사 탑과 멀리 오대산 월정사의 탑과 같이 라마교 식 탑으로서 상륜부에 구리쇠로 보개를 씌운 부분이 빛을 받아 반사하여 번쩍거리며 금탑이라고 한 듯하다. 지금도 남연군 묘 아래쪽 가야사 절터에는 석등, 부도, 탑비 등의 깨진 조각들과 주춧돌이 그대로 남아 있다.

탑을 깨부수고 절을 폐한 대한군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서인지 자기 아들이 입금이 된 그 이듬해(고종 2년, 1865년) 남연군 묘 맞은편에 있는 서원산(書院山) 기술에 절을 지었다. 자기 아들이 입금이 오토 것에 대한 은덕에 보답한다는 의미에서인지 보덕사(報德寺)라는 이름을 내렸다. 절의 시주자(施主者)가 큰 아들 이재면(李載冕)이니 조선

왕조의 마지막 왕실원찰(王室願刹)인 셈이다.

기록에 의하면, 보덕사는 “흙과 나무와 쇠붙이와 옥돌(土木金碧)로 치장하여 대단히 웅장하고 화려했으며 많은 전토(田土)와 보화(寶貨)가 내려졌다”고 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보덕사는 한국전쟁 중에 불타 없어져 ‘대단히 웅장하고 화려했던’ 절의 모습은 자취를 감춰버리고 정결하고 청순한 아담한 비구니 사찰로서 호젓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보덕사 경내에는 깨진 석등(石燈)의 화사석(火舍石)이 하나 있는데 불타서 없어진 가야사에서 옮겨온 것으로 보인다. 몸돌이 팔각인데 네 곳에 창(窓)이 나 있고 그 사이 사이에 사천왕상(四天王像)이 조각되어 있는데, 모두 귀신을 밟고 있는 형상으로 조각 솜씨가 매우 뛰어나다. 화사석의 형태로 보아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릇이 작으면 먹을거리를 많이 담을 수 없듯이 천하명당(天下明堂)이라고 해도 그 명당을 차지할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다. 천하명당의 길지(吉地)와 승지(勝地)는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난이 닳을 때 백성들이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대동(大同)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 미래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힘을 기울 수 있는 곳으로, 만백성이 그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기원할 수 있는 곳으로 자리 잡아야만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풍수지리적 관점인 것이다.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기다림의 끝

조팝나무 꽃 향기가 ‘혹’ 내 몸을 덮친다. 향기를 따라 고개를 둘러 바라보니 쌀알보다도 작은 꽃잎 다섯 개로 송이를 이룬 꽃들이 가느다란 가지들을 뒤덮었다. 하얗고 긴 꼬매의 조팝나무가 백여우의 꼬리가 되어 나를 유혹한다. 내 목을 휘감아 숨을 멎게 할 듯 살랑살랑 몸을 흔든다. 정신이 순간적으로 아찔해 그만 발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다. 세상이 온통 향기롭다. 풀이 흐르는 산이다. 배꽃도 배나무를 뒤덮고 복사꽃도 하늘을 들들일 듯 붉게 피어났다. 숲가의 산벚꽃도 돌담가의 라일락도 피었다. 들쭉거리는 양쪽으로 금강화들이 우죽우죽 분홍꽃을 피워내 돌의 모습을 지웠다. 명자꽃 붉은 빛도 남지한 뒷방울을 돌담에 흩뿌린다.

앞산도 색깔이 다르다. 거무튀튀한 빛으로 웅크리고 있더니 어느새 푸르게 몸을 일으키고 있다. 집 주위의 나뭇가지들도 은근슬쩍 푸른빛으로 모습을 바꿨다. 앞의 참나무도 뒤의 자두나무도 도랑가의 마가목도 연초록 잎들을 흔든다.

나를 부르는 소리로 듣는다고 해도 뭐라 할 그 누가 있겠는가? 은근한 눈길로, 나는 막 세상에 나온 잎들의 몸짓을 받아들인다. 잎들은 내가 원했으나 얻지 못한 딸의 모습이 되어 다가온다.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까르륵 까르륵, 나를 부르며 웃음 짓는 아이, 아이들.

세상으로 단장한 나무들은 커다란 꽃송이다. 이파리 하나하나가 모여 푸른 꽃 한 송이가 되었다. 막 세상에 나온 나뭇잎들은 세상의 어떤 꽃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꽃이다. 햇살이 잎을 통과하며 빛어내는 푸르디푸른 빛보다 고운 얼굴을 나는 알지 못한다. 나무를

꽃으로 보니 하늘로 솟을 듯 일어난 앞산도 한 송이 꽃이다. 이를

아니 사할, 여유롭게 잡어도 나을 이상은 아니다. 삼사일 동안에 바뀐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심적이다. 세상이 이렇게 ‘확’ 변할 수도 있는 거구나!

봄이라고는 했지만 겨울의 꼬리가 유난히 길게 드리웠던 날들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 중에도 피는 꽃은 있었고 돌아오는 새싹도 있었다.

갈 새들은 가고 올 새들은 왔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무리 길어도 피는 끝이 있다’는 믿음을 확인시켜주듯이 추위가 싹 가진 날, 나는 하루 네 장 때던 연탄을 두 장으로 줄였다. 퇴비물 뒷밭으로 나르고 난 뒤 도랑에서 얼굴을 씻고 숲과 맞닿아 있는, 집 옆 돌담 밖으로 발길을 옮겼다. 고추를 심을 밭은 내일 갈아도 늦지는 않다. 하지만 분봉은 내일이라도 시작될 일이었다.

날개로 바람을 일으켜 벌통 안으로 넣어주는 벌들이 서너 마리 눈에 띄니 내 마음도 바빠진다. 벌통 하단의 입구 앞에 앉아 벌이 놀라지 않게 충격을 주지 않고 문을 열어준다. 손거울을 안으로 집어넣어 벌통 안을 비춰보니 벌들의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집을 감싸고 바글거리며 까맣게 붙어있어야 했으나 허연 부분들이 드러나 보였다. 첫술을 사용해 바닥을 싹싹 쓸어냈다. 1cm 정도의 두께로 쌓인 벌집부스러기와 벌들의 사체 속에는 까만 벌레들과 함께 ‘느리’라고 하는 나방 애벌레도 있었다. 망설임 없이 제거하는 중에도 벌들은 뒷다리에 노란 화분을 동그랗게 묻혀가지고 들어가 벼속의 꿀을 비우고 꽃가루를 떼어낸 뒤 나갔다. 청소가 끝날 즈음엔 몇몇 벌들이 긴장된 몸짓으로 기어나와 위협하듯 내 주위를 날아다녔다. 아차, 부리나के 입구를 막고 벌통 앞에서 떨어졌다.

벌은 20통 남짓 되었건만 지난 가을 말벌의 습격에 희생되고 예상보다 추웠던 겨울 탓인지 세 통만 남았다. 최소한의 보살핌 속에서도 많은 꿀을 얻고자 하는 내 욕심을 견제하는 것인지 벌은 쉽게 놀지 않는다. 좀 놀았다 싶으면 울해처럼 속 졸곤 한다. 청소를 마치고 벌통 앞의 느릅나무에 분봉군을 받기 위한 유인 벌통 두 개까지 매달아놓으니 저녁이 가까워졌다.

저녁바람이 부는데도 드나드는 벌들의 몸짓은 멈추지 않는다. 서산 위에서 발악적으로 내뿜는 빛을 받으며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니 밤이 올 것 같지가 않다. 날아가는 벌들을 배웅하기라도 하듯이 푸른 잎들이 바람에 일렁인다.

벌보다 어린 나뭇잎이 더 좋냐고? 그런 질문엔 대답할 수가 없다. ■유승도 (시인)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 「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며,, (본문에서)

빛 살림
정골요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인,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정육부의 뿌리, 비틀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장,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재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자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